



문덕진/교장

문 일여고 22년의 역사를 담아 자료집을 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1985년 교사(校舍) 서옥관을 신축 준공하고, 그 해 12월 학교 설립 인가를 얻어 1986년 3월 대망의 첫 입학식을 가질 때까지 크고 작은 시련들을 용케 견뎌내고 20회 졸업생 배출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개교 당시 혼자 동분서주하며 교훈과 교가, 교육계획서를 수립하는 일이 힘에 부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맞게 된 첫 입학식은 남다른 감회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 곳곳에 심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는 물론이고, 교정 구석구석에는 나를 포함해 교사(教師)들의 정성어린 손길과 진한 땀방울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개교 당시 험난한 굴곡을 이겨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학교 발전을 생애의 목표로 삼아 인천의 여성 인재 육성에 매진할 것입니다.

학교법인 문성학원은 선친이신 故 문용호 이사장의 교육입국 의지아래 1958년 인천고등 기술학교를 시작으로 1974년 문성여상(현 문성정보미디어 고등학교), 문일여고로 이어지며 인천의 명문 여고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학력 뿐 만 아니라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전국 과학경진대 회우수상, 외국어 경시대회 금상 4회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일여고는 인천에서는 손색없는 인문계 명문 여자 고등학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인천이 아닌 전국 제일의 명문고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차례입니다.

현재 문일여고를 졸업한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학이념인 '성근(誠勤)'의 정신을 살려 사회 전반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더욱더 모범적으로 활약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작은 성취를 발판 삼아 이제부터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 나가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며 포스트모던 사회로 국가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보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인재 육성에 우리 교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문일여고의 태동에서부터 22년, 비록 짧은 세월이지만 어느 학교 못지않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제 2의 도약을 기약하는 시점에 지난 22년의 자료를 정리해 집대성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늦게나마 '문일22년사'가 빛을 보게 되어 그동안 지고 있던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까지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과 지역 어르신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이 책자가 지난날을 돌이켜 보는 거울이 되고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창조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문일여자고등학교 교장 문덕진